

세브란스를 중심으로 본 CMB의 한국의학 재건사업

여인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및 의학사연구소

- I. 서론
- II. CMB의 조직과정과 초기 활동
- III. 중국 공산화와 CMB 지원 대상국의 변화
- IV. CMB의 세브란스 지원
- V. 결론

I. 서론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일단락 된 이후, 전쟁으로 파괴된 한국사회를 재건하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이루어졌다. 의학 분야도 예외가 아니었다. 재건은 단순히 파괴된 병원이나 학교 건물의 재건과 같은 유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인력 교육과 연구비 지원 등 무형적인 것에 대해 서도 이루어졌다. 전후 한국 의학의 재건을 위해 이루어진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은 CMB(China Medical Board)와 미네소타 프로젝트이다. 이 중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서울 대학교라는 특정 학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인 만큼 제한적이다. 반면 CMB는 특정학교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의 의료계, 특히 당시 한국에 있던 대부분의 의과대학을 지원했으므로 전후 한국의 의학계를 재건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CMB의 이러한 활동과 그 공헌의 내용은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정리되

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전후 한국의학의 재건에 기여한 CMB의 활동과 공헌의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다만 한국에서 이루어진 CMB의 전체 사업을 포괄하지는 못하고, 주로 연세의대에 대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연세의대는 CMB의 지원을 여러 방식으로 가장 많은 받은 기관이다. 따라서 연세의대에 대해 이루어진 지원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CMB의 지원방식과 성과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I. CMB의 조직과정과 초기 활동

CMB(China Medical Board)는 그 명칭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중국의 의학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록펠러 재단 산하에 만들어진 조직이다. 그럼 록펠러 재단은 왜 중국의 의학발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석유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록펠러(John D. Rockefeller)는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목적에 가장 적합한 분야가 의학과 보건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1901년 록펠러 의학연구소가 설립되었고, 초대 소장으로는 유명한 의학자이자 의학교육가인 윌리엄 웰치(William H. Welch)가 임명되었다.¹⁾ 이러한 공익사업의 내용과 방향을 구상하고 이를 록펠러에게 제안했던 사람은 게이츠(Frederick T. Gates)였다. 그는 미국 내에 의학연구기관을 만들고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것만이 아니라 범위를 넓혀 아시아 지역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자 했다. 이러한 구상을 더욱 조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13년 5월 록펠러 재단이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재단의 기본적인 관심사는 공중보건과 의학교육, 그리고 의학연구였다. 재단의 이사였던 게이츠와 그린(Jerome D. Greene)은 이런 사업을 극동, 특히 중국에서 실행하는 데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린은 1913년 10월 22일에 열린 모임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현지 조사를 제안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중국에서 시행할 의학교육과 연구 사업을 논의하는 ‘The China Conference’가 이듬해인 1914년 1월 19일에 열렸다. 이 모임에는 존 록펠러를 비롯하여 주요 선교부의 임원들과 중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 그리고 중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미국인들이 초청되었다.²⁾

1) Mary E. Ferguson, *China Medical Board and Peking Union Medical College* (China Medical Board of New York, Inc., New York), 13.

2) Mary E. Ferguson, *China Medical Board and Peking Union Medical College*, 15.

이 모임이 열리고 이를 후인 1914년 1월 21일에는 록펠러 재단 이사회가 열렸고, 거기에 서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정을 내렸다. 첫 번째는 의학 분야의 사업을 중국에서 시행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사업은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선교기관이건 정부기관이건 기존의 기관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었다.³⁾ 이 결정에 따라 먼저 현재 중국의 의료와 의학 교육 상황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기로 했다. 그리고 현지조사활동을 위해 피바디 박사를 단장으로 하는 ‘China Medical Commission’이 구성되어 중국으로 향했다. 이들은 1914년 4월 18일 북경에 도착해서 조사활동을 시작했다.⁴⁾ 이들은 북경, 상해, 천진, 항구, 곡부, 장사 등 중국 전역의 병원과 의학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수행했다. 약 4개월에 걸쳐 현지조사를 마친 이들은 1914년 8월 17일 일본의 교토에 모여 조사활동 중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했다. 최종 보고서는 ‘*Medicine in China*’라는 제목으로 같은 해에 출판되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의료상황과 의학교육 현황을 기술한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 제안사항들을 제시했다. 그 주요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중국에서 대규모의 공중보건사업이나 의학연구사업을 시작하기는 시기상조이므로, 우선 의학교육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북경에 있는 연합의과대학을 선택하여 거기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이차적으로 상해 지역에서도 같은 사업을 한다. 이밖에도 몇 가지 사소한 제안사항들이 있었다.⁵⁾ 록펠러 재단의 이사회는 이 보고서 내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같은 해 11월 30일 열린 회의에서 보고서가 제안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기로 하고 그것을 ‘China Medical Board of Rockefeller Foundation’으로 명명하기로 했다.

‘China Medical Board’는 약 열흘 후인 1914년 12월 11일에 첫 회의를 열고 보고서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실행해나가기 시작했다. 먼저 CMB는 이십만 달러를 들여 북경의 연합의과대학(Union Medical College)⁶⁾를 구입하고, 이 학교의 공식 명칭을 ‘북경협화의과대

3) Mary E. Ferguson, *China Medical Board and Peking Union Medical College*, 17.

4) China Medical Commission of the Rockefeller Foundation, *Medicine in China*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14), vi.

5) China Medical Commission of the Rockefeller Foundation, *Medicine in China*, 91-93.

6) 연합의과대학은 원래 다음과 같은 여러 선교단체들이 연합하여 운영하던 의과대학이었다. London Missionary Society, the London Medical Missionary Association, the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ary Society, the Methodist Missionary Society, the American Board of Missions, the Society for the

학(Peking Union Medical College)’로 하였다. 이 학교의 운영은 이후 중국의 공산화로 CMB가 중국에서 철수할 때까지 CMB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업이 되었다. 이 학교를 중국의 존스 홉킨스 의대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매년 오만 삼천 달러의 막대한 운영비를 투입하고, 세계적인 석학들을 교수로 초빙하였다. 원래 이 학교는 선교기관이었으나 CMB가 운영을 맡은 이후에는 기독교적 색채를 탈색하여 학생이나 초빙한 교수에게도 기독교적 배경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학문적인 높은 기준만을 요구했다.⁷⁾ 그 결과 북경협화의과대학은 미국의 유수한 의과대학에 비해 교수진과 학생의 수준, 그리고 학교 시설 면에서 전혀 손색이 없는, 어떤 경우는 더욱 뛰어난 학교가 되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는 이용설, 최동, 이 중철 등 적지 않은 세브란스 졸업생들이 북경협화의과대학에 유학을 갔다.

III. 중국 공산화와 CMB 지원 대상국의 변화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그간 중국에서 활동하던 외국의 선교단체들은 중국을 떠나게 되었다. CMB도 마찬가지였다. CMB는 1950년까지도 북경협화의대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모색해보았다. 그러나 일시적이란 단서가 달리기는 했으나 공산당 정부로부터 병원 시설의 수용을 요청받고 고민에 빠졌다. 이에 더해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 재무부가 중국과의 모든 재정적인 거래를 금지하고, 중국으로 화물을 보내는 것도 금지시켰다. 그리고 그에 대한 중국 측의 보복조치로 중국 내 미국의 모든 자산이 동결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CMB는 더 이상 북경협화의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더구나 결정적으로 1951년 1월 20일 중국공산당 정부는 북경협화의대를 국유화해버렸다.⁸⁾ 이렇게 하여 CMB는 북경협화의대에서 손을 떼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에서 손을 뗀 CMB는 중국을 지원하던 재원으로 아시아 지역의 다른 의과대학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1952년에는 일본을 시작으로 타이완을 지원했고, 1953년에는 한국과 홍

Propagation of the Gospel.

7) Mary Brown Bullock, *An American Transplant: The Rockefeller Foundation and Peking Union Medical Colleg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40.

8) Mary E. Ferguson, *China Medical Board and Peking Union Medical College*, 226.

콩, 태국을, 그리고 이후에 지원의 범위를 계속 확장하여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총 16개국의 의과대학을 지원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지원대상의 변경은 사실 CMB 정관의 사업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정관에 따르면 CMB는 “북경협화의대와 극동이나 미국의 다른 유사한 기관을 재정적으로 지원”⁹⁾하도록 사업목적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철수한 CMB의 총재 라욱스(Harold L. Loucks, 1946-1959)는 지원할 기관을 찾기 위해 극동의 여러 국가를 답사하였다. 1953년 한국을 방문한 그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한국의 여러 의과대학을 시찰한 결과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지원을 받아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기관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라욱스가 세브란스에 주목을 하게 된 것에는 개인적인 친분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 북경협화의대의 외과교수로 근무했던 그는 그곳에서 재직하며 두터운 친분을 쌓았던 선교부의 닉터 펜(Dr. William P. Fenn)과 자신의 웨스턴 리저브 대학의 선배이자 세브란스의 외과교수를 역임한 러들러 교수로부터 세브란스 의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었다.¹⁰⁾ 또 세브란스를 방문하여 전쟁으로 파괴된 학교를 재건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교직원들을 직접 본 것도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CMB의 한국 지원이 세브란스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CMB는 세브란스 이외에 서울의대와 간호대, 서울대 보건대학원, 경북의대, 전남의대, 전북의대, 이화여대의대 등 국내의 여러 의과대학을 골고루 지원했다. 그런 의미에서 지원을 서울대학에만 집중 시킨 미네소타 프로젝트보다 훨씬 광범위하고¹¹⁾, 한국의 의학발전에 미친 영향도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9) The Functions of the China Medical Board, Inc., and its relations to the Trustees of the Peking Union Medical Colleges. Mary E. Ferguson, *China Medical Board and Peking Union Medical College*, 254.

1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정사』(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982), 110.

11) 사실 미네소타 프로젝트도 처음에는 특정 학교만이 아닌 한국의 여러 대학들을 모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 다. 그러나 진행 과정에서 서울대 측 인사들이 서울대 지원프로그램으로 변질시켜 서울대가 지원의 자원을 독점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IV. CMB의 세브란스 지원

CMB는 1953년 세브란스를 처음으로 지원한 이래 1976년 지원을 종료할 때까지 20년 이상 다양한 방식으로 세브란스를 지원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건축 지원, 실험 및 교육기자재 지원, 연구비 지원, 연수비 지원, 의학교육 및 병원운영 컨설팅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영역의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래에서는 그 지원의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건축 지원

먼저 전후 파괴된 세브란스를 복구하는 데,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촌의 의료원 캠퍼스를 조성하는 데 CMB의 도움이 컸다. 서울역이라는 중요한 시설의 바로 앞에 있던 세브란스는 한국전쟁 중 공습과 포격의 대상이 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건물의 파괴가 85퍼센트, 시설의 파괴와 손실은 100퍼센트에 달해 제대로 남아있는 것이 전무하다시피 했다.¹²⁾ 전화를 피해 남쪽으로 피난을 갔다가 다시 서울로 복귀한 것이 1952년이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것은 완벽한 폐허였다. 그렇다고 해서 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학장이던 김명선은 동문서주하며 재건을 주도했다.

당시 미8군에는 군인들 이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민간인 노무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들은 군인이 아니어서 군의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미8군 민사원조처 처장이던 먼스키 대령은 이들 노무자와 재건이 시작된 서울 지역의 시민들을 위한 민간병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먼스키의 통역이던 이병태(1947년 졸업)를 통해 김명선에게 알려졌다. 미8군이 원하는 민간병원을 세브란스 병원 내에 설치하기로 하고 미8군의 지원을 받아 파괴된 세브란스병원의 일부를 수리하였다. 그렇게 하여 미8군 노무자를 위한 40병상 규모의 병원을 운영하게 되었다.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기구는 미군병원에서 공급해주었다.

이처럼 어느 정도는 미군의 필요성에 따른 지원이기는 했으나 이후에도 이어진 미군의 지원은 파괴된 건물의 복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미군에 의한 지원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

12) 『의학백년』, 164.

과 같다. 미 5공군에서 5만 달러 상당의 건축 자재를 지원하고, 미 북장로교 선교부에서 15,000 달러의 보조금을 받아 파괴된 에비슨 관을 복구했다. 미 제1군단은 80,000 달리를 원조하여 18세 이하 전상자 수용을 위해 구 전염병동을 수리할 수 있었다. 또 미 8군 민사지원처가 12,247 달러를 지원하여 병원 본관 옥상에 1층을 증축했다.

미군이 복구에 가장 큰 기여를 하였지만 미군 이외의 다른 단체의 지원도 있었다. 세계기독교봉사회는 40,000 달리를 지원하여 거의 완파된 본관 건물을 복구했다. 복구된 건물의 1층과 2층은 스트리더스 교수가 주관하던 결핵관리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흉곽내과의 진료실로 사용했다. 감리교 선교부와 캐나다 선교부가 각각 2,000 달리를 내어 간호사 기숙사를 보수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미군을 비롯한 여러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전쟁으로 파괴된 건물들을 상당히 복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불완전한 복구에 그쳐 복구의 과정에서 보다 새로운 시설에 대한 요구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복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1953년부터 연희대학과 합동문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미 8군은 기념병원을 세브란스에 기증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¹³⁾ 기념병원이 들어설 자리는 좁은 서울역 앞의 기존 부지가 아니라 넓은 신촌 캠퍼스로 정해졌다. 건축에 소요되는 자재는 미 8군에서 지원하고, 예상 공사비 46만 달리는 선교본부에서 지원키로 하였는데 선교본부의 지원 조건은 세브란스와 연희, 양교의 합동이었다. 그리고 합동을 전제로 병원뿐 아니라 의대와 간호대 등도 함께 건축해 거대한 의료원을 신촌에 세운다는 계획이 점차 구체화되어 나갔다.

세브란스와 연희 합동의 가시적인 출발점이 될 흉곽병원의 기공식은 1955년 4월 23일에 열렸다. 흉곽병원의 신축은 새로운 의료원 캠퍼스 조성작업의 시작이기도 했다. 미 8군의 후원으로 흉곽병원의 건축이 시작되었고, 의과대학을 비롯한 다른 건물들의 건축도 계획되어 있었으나 이를 실현할 재원은 마련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1957년 차이나 메디컬보드는 의과대학 건물의 신축을 위해 45만 달리를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1959년에 착공키로 하였다. 그리고 착공이 이루어지던 1959년에는 30만 달리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차이나 메디컬보드의 지원결정으로 1959년 4월 1일 의과대학 건물이 착공되었다. 의과대학은 전평 600평에 연건평 2,367평으로 강의실, 실험실, 동물실, 연구실, 소강당 등의 시설이 들어갈 4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질 예정이었다. 이미 75만 달리를 지원한 차이나 메디컬보드

13) 『의학백년』, 175.

는 1961년 5월 10일 이사회에서 추가로 2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자금은 90 퍼센트 정도만 완료되었던 건물 외부공사의 완성과 난방 장치 설치에 사용되었다. 이처럼 차이나 메디컬보드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1961년 9월 20일 의과대학의 봉헌식이 거행되었다. 연세대학교 명예총장인 백낙준 박사와 차이나 메디컬보드 맥코이 박사를 비롯한 내외 귀빈이 참석하여 열린 봉헌식에서 맥코이 박사는 “훌륭한 시설보다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의 양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내용의 기증사를 했다.¹⁴⁾

이렇게 세워진 의과대학 건물은 학교가 발전함에 따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곧 협소하게 되었다. 그래서 의과대학 증축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차이나 메디컬보드가 지원하기로 했으나, 이전과는 달리 차이나 메디컬보드가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원에서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을 차이나 메디컬보드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의과대학 신관 건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의과대학 발전 계획안이 1968년 4월 29일 열린 이사회에서 통과되었고, 5월 초에는 건축비의 절반을 차이나 메디컬보드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의 서면동의서를 맥코이 박사가 보내왔다.¹⁵⁾ 그 내용은 차이나 메디컬보드 측에서도 보다 구체화되어, 의과대학 증축비 400,000 달러를 포함한 454,000 달러를 연세의 대에 지원하는 안건이 1969년 11월 24일에 열린 차이나 메디컬보드 이사회에서 통과되었다.¹⁶⁾ 이듬해인 1970년 9월 11일에 의대 신관과 도서관의 신축 기공식이 신축 예정지에서 열렸으며 이 기공식에는 차이나 메디컬보드의 코넬 부이사가 참석했다.¹⁷⁾ 또 의대건물만이 아니라 간호학과 건물도 차이나 메디컬보드의 일부 지원으로 세워졌다. 1967년 11월 4일에 봉헌된 간호학과 신축건물은 총 202,000 달러의 공사비 가운데 미국 연합재단이 공사비의 대부분인 182,000 달러를 기부했고, 차이나 메디컬보드가 20,000 달러를 기부했다.¹⁸⁾

14) 『연세춘추』, 「20일 의과대학 봉헌」, 1961년 9월 25일.

15) 『연세춘추』, 「이사회, 의과대학 발전 계획안 승인」, 1968년 5월 27일.

16) 『연세춘추』, 「C.M.B.서 45만불 지원, 의과대학 증축, 연구비로」, 1969년 11월 24일.

17) 『연세춘추』, 「의대증축 기공식」, 1970년 9월 14일.

18) 『연세춘추』, 「4일 간호학과 신축건물 봉헌식거행」, 1967년 11월 6일.

2. 연구비와 연구설비 지원

지금은 연세의료원이 외부에서 받는 연구비가 1년에 1,000억 원을 넘어 의학 분야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연구비를 받는 기관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어렵던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당시는 국가적으로는 가난하여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수혜한다는 생각을 하기는 어려운 때였다. 당시의 연구비는 해외의 단체로부터 받는 것이 거의 전부였다. 그런데 해외 단체들의 경우 단발성이나 특정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에 비해 차이나 메디컬보드에서 지원한 연구비는 특정 사업이나 목적을 위해 지원한 것이 아니라 의학연구 그 자체를 위해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차이나 메디컬보드는 우리 대학만이 아니라 한국의 의학연구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차이나 메디컬보드는 1962년 12월 26일 교수 연구비 35,000달러를 의과대학으로 보내왔다. 연구비는 이보영(내과), 홍필훈(외과), 홍사석(약리), 홍석기(생리), 김순웅(병리), 윤덕진(소아과) 등 6명의 교수가 받았다. 이후 차이나 메디컬보드는 매년 정기적으로 연말 경에 연구비를 지급했다. 1964년 12월 8일에는 2만 달러의 연구비를 7명의 의대 교수들에게 지급했다.¹⁹⁾

표 1. 1964년도 CMB 연구비 수혜 내역

수혜자	연구제목	액수(달러)
민광식(외과)	췌액분비 및 수술후 환자의 수분대사에 관한 연구	2,375
이상용(내과)	알러지성 질환에 관한 연구	3,200
이기열(생화학)	한국인 식품의 분석	4,325
박수연(해부학)	조직화학 연구	2,125
이우주(약리학)	조직 카테콜라민이 동맥경화증 발생에 미치는 영향	4,350
문태준(신경외과)	한국동란시 뇌수술 받은 환자에 관한 연구	1,925
김광희(정형외과)	골이식에 관한 연구	1,700

19) 『연세춘추』, 「차이나 메디컬보드서 연구비 2만불」, 1965년 1월 18일.

1965년에는 총 9명의 교수가 3만 달러를 지급받았다.²⁰⁾ 특히 이 해에는 수혜받은 총 9명의 교수 중에 기초의학교수가 7명에 달할 정도로 기초의학연구에 집중적으로 연구비가 주어졌다. 또한 정교수만이 아니라 젊은 교수와 강사들에게도 연구비가 지급되었다. 1966년에는 2만 달러의 연구비가 모두 4명의 기초학 교수와 강사에게 지급되었다. 특히 1967년에 지급된 2만 달러의 연구비를 받은 6명 중 4명이 강사였다.²¹⁾

표 2. 1966년 CMB 연구비 수혜 내역

수혜자	연구제목	액수(달러)
김경수(해부학)	척추신경 연구	1,016
유종섭(약리학)	갑상선 홀몬 기전연구	3,125
양용해(미생물학)	토끼의 섬유모세포 조직	2,870
양재모(예방의학)	기초 보건위생 연구	1,700

이처럼 매년 차이나 메디컬보드로부터 지급되던 연구비는 1976년에 이르러 종결된다. 그것은 한국이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감에 따라 한국보다 저개발국을 지원하는 방침에 따른 것 이었다. 이에 대해 의과대학에서는 한국이 이전보다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자체적 연구비 재원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이전처럼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의과대학 측이 대응자금을 내어 함께 연구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CMB-Yuhan Matching Fund’였다.²²⁾ 이 연구기금은 의과대학과 차이나 메디컬보드가 각각 250,000 달러를 내어 총 500,000 달러의 기금으로 운영되며, 매년 50,000 달러를 연구비로 교수들에게 지급키로 하였다.²³⁾

20) 『연세춘추』, 「의과대학 교수 9명에 연구비 3만불 지급」, 1965년 11월 29일. 신태선(해부학), 3,000달러; 송정석(생화학), 2,000달러; 홍석기(생리학), 4,100달러; 홍사석(약리학), 5,100달러; 최대경(미생물), 4,500달러; 소진탁(기생충학), 2,500달러; 채웅석(내과), 2,500달러; 이삼열(임상병리), 2,000달러; 김명호(예방의학), 3,500달러.

21) 『연세춘추』, 「차이나 메디컬보드 연구비 2만불을 6개 교실에」, 1967년 11월 27일.

22) 『재정사』(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982), 114.

23) 『연세춘추』, 「의과대 연구비기금 50만불」, 1976년 4월 5일.

차이나 메디컬보드는 연구비 이외에도 연구장비 및 학생실습용 기자재 등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1953년 처음으로 이루어진 지원이 실습용 현미경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최신 연구장비 구입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전자현미경 구입비용 50,000 달러를 지원하여,²⁴⁾ 1968년 6월에 일본산 히타치 전자현미경이 도입되어, 의대 구내에 설치되었다.²⁵⁾ 또 같은 해에는 방사성 동위원소 주사(scanning) 기구 설치와 의학유전학 연구실에 자동조절 항온실을 포함한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했다.²⁶⁾

3. 해외연수지원 및 장학금 지원

차이나 메디컬보드는 한국의 학자들이 해외에 나가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견문을 넓히는 기회도 제공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많은 교수들이 차이나 메디컬보드의 지원으로 해외연수를 떠나 발전된 지식을 배울 수 있었다. 장기간의 연수만이 아니라 짧게 해외에서 열리는 학회에 참여하여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여행경비도 지원해주었다. 1956년부터 시작된 연수경비 지원은 1974년까지 이루어졌으며, 이 기간 동안 모두 35명이 혜택을 받았다. 지금과는 달리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던 당시 차이나 메디컬보드의 지원은 발전된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도 있었다. 이 장학금 지원은 주로 지역사회보건을 공부하는 대학원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1973년에는 80,000 달러의 장학금이 예방의학과 공중보건을 공부하는 대학원 학생들을 위해 지원되었다. 또 1974년에는 100,000 달러의 장학기금이 간호대에 주어졌는데, 이는 지역사회의 간호지도자 양성을 위한 것으로 국내에서 석사과정을 밟는 학생에게 주어졌다.²⁷⁾

24) 『연세춘추』, 「차이나 메디컬보드서 10여만불 원조」, 1967년 11월 20일.

25) 『연세춘추』, 「고성능 전자현미경 설치, 일본산으로 6월말 의대에 도입」, 1968년 7월 15일.

26) 『연세춘추』, 「안승봉 교수에 원조협조 통고, 서면으로 64,500불 지원키로」, 1968년 6월 3일.

27) 『연세춘추』, 「CMB, 간호대에 10만불 장학 기금」, 1974년 1월 28일.

4. 의학교육 및 병원 운영 컨설팅 경비 지원

차이나 메디컬보드의 지원은 유무형의 지원 형태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서 무형적인 지원의 대표적인 사례는 의학교육과 병원 운영에 관한 컨설팅 지원이었다. 차이나 메디컬보드의 세브란스에 대한 컨설팅 지원활동은 1960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몇 차례 세브란스에 대한 이러한 평가 지원활동이 있었다.

먼저 1956년 봄에 노스웨스턴 대학교 의과대학의 내과교수인 폴 로즈(Paul S. Roads)가 내한하여 2주간 머물며 세브란스의 상황을 평가하였다. 그는 교수진의 부족함과 함께 학생 실습장비의 열악한 상태를 지적하였다. 교과과정 위원회에서는 낡은 교육과정을 개혁하는데에 동의했다. 그 내용은 본과 3, 4학년 학생에 대해 강의를 줄이고 임상실습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부족한 교수진을 보강하기 위해 외과의 와이스, 치과의 맥킨니스, 결핵의 스트리더스와 베제스 등의 선교의사들이 합류했다.²⁸⁾

로즈의 평가에서 지적된 학생실습장비의 열악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차이나 메디컬보드는 현미경 50대를 기증하기로 하고, 파괴된 도서관에 참고서적을 지원하기로 했다. 로즈는 그 밖에 의예과 교육의 충실회와 수입증대를 위한 가능한 방법, 기금모집 등에 대한 조언도 했다.

로즈에 이어 두 번째로 온 사람은 닉터 피러(Dr. Warfield W. Firor)였다. 그는 1957년에 세브란스에 와서 두 달을 머물렀고, 이듬해인 1958년 여름에 다시 세브란스를 방문했다. 그는 특히 기독교적 봉사정신에 투철한 1급의 의과대학과 병원이 새로운 의료원 설립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국군 당국과 미군을 설득해 매년 25명의 세브란스 졸업생들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동안 군복무를 연기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는 또한 동창회에 의한 기금모금을 강조했다.²⁹⁾

1960년 1월에서 3월에 걸쳐 의학, 치의학, 간호학, 보건학, 약학 등에 대한 한국고등교육조사(Survey of National Higher Educ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가 이루어졌다. 이는 당시 한국의 해당 분야 고등교육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조사였으며, 이후 차이나 메디컬

28) J. A. Curran,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nd Medical Center Study of Educational Resources and Program* (1961), 5.

29) J. A. Curran,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nd Medical Center Study of Educational Resources and Program*, 6.

보드가 주관하는 세브란스에 대한 평가조사를 이끌 큐란(Dr. Jean Alonzo Curran)³⁰⁾도 여기에 참여하였다. 1960년 12월 21일 뉴욕에서 차이나 메디컬보드의 인사와 아시아 기독교고등교육 연합선교본부의 인사들이 모여 연세대학교의 새로운 메디컬 센터 건립을 위한 최초의 공식적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먼저 차이나 메디컬보드가 지급한 연구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는 학생들의 실습기자재 도 부족한 상태에서 연구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었다. 다음으로는 설비와 관련된 부분으로 연구장비의 가동을 위한 발전기 구입에 관한 문제, 대학과 병원의 각 방에서 필요한 장비와 설비, 신촌으로 가져가 사용할 수 있는 장비와 설비들, 병원에 필요한 장비 구입 비용(260,000에서 300,000달러 추산) 등에 관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는 자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에 관한 것으로 한국인들이 마련한 돈으로 외래건물을 세우는 것과 서울역 앞의 세브란스 부지 매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에 대한 논의였다.³¹⁾ 이 내용을 보면 단순히 세브란스에 대한 자문과 컨설팅이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신촌에 건립될 새로운 메디컬 센터를 목표로 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차이나 메디컬보드만이 아니라 기독교 선교부 등 여러 단체가 협력하여 연세 캠퍼스에 새로운 메디컬 센터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만든 요인으로 큐란은 세 가지를 들었다.

첫 번째는 1960년에 영문의학학술지인 *Yonsei Medical Journal*이 출간된 일이었다. 큐란은 특히 여기에 큰 중요성을 부여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브란스의 교수진들의 학문적 성취를 보여줌으로써 학계의 관심을 끈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큐란은 그 내용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가 주목한 것은 이 학술지에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에 대한 수준 높은 연구들이 실렸을 뿐만 아니라, 서울의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보건과 지역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논문들도 실린 점이었다. 특히 당시 한국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었던 소위 양잿물 음독으로 인한 후유증의 치료법 개발을 높이 평가했다. 당시에는 자살을 위해 양잿물을 마시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양잿물 음독은 죽음을 가져다주지 않고 식도 점막을 부식시킴으로써 회

30) 큐란은 코넬의대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롱 아일랜드 의대의 학장으로 있으면서 롱 아일랜드 의대를 뉴욕주립대학의 의대로 발전시켰다. 이후 세계보건기구의 의학교육자문관으로 한국뿐 아니라 중동과 필리핀 등에서 의학교육과 관련된 자문활동을 하였다.

31) J. A. Curran,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nd Medical Center Study of Educational Resources and Program*, 7.

복 과정에서 식도 전체의 유착을 가져와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장의 일부를 떼어내어 인두와 위를 연결시켜 식도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치료술을 당시 세브란스 병원에 와있던 스콧 선교사가 개발했던 것이다.

두 번째 요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개신교 단체들이 연합하여 특정한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유일한 기회를 세브란스는 제공했다. 때문에 해외의 유관 기독교 단체와 개인들이 세브란스의 재건과 신촌에 새로운 메디컬 센터 건립에 힘을 모을 수 있었다.

세 번째 요인은 1885년 제중원의 설립 이후 세브란스가 세워지고 발전하는 과정 자체가 한국과 미국의 긴밀한 우호적 관계 속에서 가능했던 점이다. 이는 해방 이후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며 강화되었다. 새로운 메디컬 센터 건립에 참여한 주체는 미군, 차이나 메디컬보드, 기독교선교단체 등 다양했지만 이들은 기독교선교단체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의 기관이었다. 종합해서 보자면 전후 중국이 공산화된 상황의 동아시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차지하는 전략적인 위치, 한국전쟁 이후 파괴된 시설의 복구 필요, 또 세브란스가 기독교 기관이라는 점, 세브란스와 미국의 오랜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메디컬 센터의 건립이 가능했다고 큐란은 파악했다.³²⁾

뉴욕에서 최초의 모임이 있고 1년 후인 1961년 1월 9일부터 3월 30일까지 큐란은 약 3개월에 걸쳐 세브란스를 방문하여 다방면에 걸친 조사를 실시했다. 큐란은 세브란스의 현황과 계획에 대한 조사를 마친 이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을 제안했다. 그것은 신촌의 새로운 메디컬 센터 건축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의학교육, 병원 운영, 교수진, 재정 등 전반에 관한 것이었다. 먼저 그는 서울역 앞에 있던 모든 시설과 과들이 신촌으로 이전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정신과와 치과, 그리고 나병 클리닉에 대한 공간 배정이 신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 의아함을 표현하였다. 그래서 구체적인 제안 항목의 가장 첫 부분에서 그는 이 세 과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³³⁾ 아울러 그는 새로운 센터로 이전하면서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능한 과의 수를 줄이기를 권고하였다. 그리고 그 예로서 의사학교실과 법의학교실을 내과학교실 아래에 두는 방안을 제안

32) J. A. Curran,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nd Medical Center Study of Educational Resources and Program*, 20.

33) J. A. Curran,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nd Medical Center Study of Educational Resources and Program*, 21.

했다.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당시에는 아직 없었던 이들 교실들이 신촌 이전을 계기로 만들어 질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³⁴⁾

이것 이외에도 큐란은 보고서에서 의학교육과 병원운영, 건물 신축, 재정 등에 관한 많은 실질적인 조언을 했다. 그리고 2년 후인 1963년에는 그간의 진행 상황을 반영한 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다.³⁵⁾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한 조사 역시 차이나 메디컬보드의 지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특히 이 조사 기간 중에는 차이나 메디컬보드의 부위원장인 코넬 박사 (Dr. Frank H. Connell)가 극동지역 순방 일정 중에 잠시 들러 조사활동에 참여했다. 역시 차이나 메디컬보드의 지원을 받아 서울의대에 대한 자문활동을 하고 귀국을 앞둔 미네소타 대학의 부학장 골트(Dr. N. L. Gault), 또 차이나 메디컬보드의 지원으로 생리학 방문교수로 와있던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브로벡(Dr. John Brobeck)도 조사활동에 도움을 주었다.³⁶⁾ 차이나 메디컬보드는 1차 조사를 위해 세브란스를 방문한 큐란의 급여와 경비로 12,000달러를 지원했고, 1963년에 이루어진 2차 조사 시에는 12,500달러를 지원했다.³⁷⁾

그간 병원과 의과대학 건물을 비롯하여 처음 계획했던 건물들은 대부분 완공되었으나, 간호대 건물과 외래건물의 일부는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 그래도 1963년 7월 1일에는 계획했던 모든 건물들이 완공되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³⁸⁾

V.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차이나 메디컬보드는 1953년에 처음 세브란스에 대한 지원을 시

34) J. A. Curran,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nd Medical Center Study of Educational Resources and Program*, 22.

35) J. A. Curran, *A Study of Medical Education and Hospital Activities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nd Severance Hospital* (Seoul, Korea Progress Report, March-May, 1963).

36) J. A. Curran, *A Study of Medical Education and Hospital Activities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nd Severance Hospital*, 2.

37) 『재정사』(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982), 110-111.

38) J. A. Curran, *A Study of Medical Education and Hospital Activities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nd Severance Hospital*, 5.

작한 이래 약 20여 년 동안 세브란스만이 아니라 한국의 의학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계속했다. 차이나 메디컬보드의 지원은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지원 기관의 종합적인 발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이라는 점이 큰 특징이다. 가시적인 건물의 신축이나 실험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금과 연수비용을 지급했다. 또 전반적인 의학 수준의 향상을 위해 연구비의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는 현실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실용적 연구에 연구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많으나, 오히려 차이나 메디컬보드에서는 기초의학연구에 초점을 맞춰 많은 연구비를 지급했다. 또 효율적인 병원운영과 의학교육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해서 한국의학이 종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했다.

세브란스에 대한 이루어진 지원만을 지원액수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72년 현재 세브란스에 대해 이루어진 지원의 총 규모는 360만 달러였다.³⁹⁾ 지원의 내용별로 나누어보면 건축 및 시설비 140만 달러, 해외연구장학금 19만 달러, 순수연구비 40만 달러, 교육연구용 장비 구입 756,000 달러, 의대개발기금 508,000 달러, 기타 34,000 달러 등이다. 그런데 1973년과 지원이 종결되는 1974년도에도 지원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렇게 지원된 금액을 모두 합하면 약 400만 달러에 이른다. 차이나 메디컬보드가 세브란스를 지원한 시기는 한국전쟁 직후의 어려운 복구시기부터 한국이 경제성장의 토대를 닦고 도약하기 시작하는 1974년까지였다. 외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 지원이 이루어졌고, 자립이 가능해진 시기에 지원이 종결되었다.

차이나 메디컬보드가 전후 한국의 의학발전을 위해 지원한 내용과 지원 규모는 어렵게도 그 전체적인 모습이 아직 다 밝혀져 있지 않다. 한국에서 지원받은 기관의 자료와 또 차이나 메디컬보드 본부의 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를 통해 추후 보다 종합적인 내용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어: 차이나 메디컬보드, 세브란스병원, 연세의대, 한국전쟁

논문 투고일: 2015.03.13. 심사 완료일: 2015.04.05. 게재 확정일: 2015.04.10.

39) 『연세춘추』, 「차이나 메디컬 보오드에서 의대에 50만불 원조」, 1972년 7월 24일.

부록 1. CMB 지원을 받은 해외연수자 명단과 지원액수

연도	성명	액수(달러)
1956	소진탁	4,600
	윤덕진	4,600
	박수연	4,600
1960	홍필훈	4,900
1961	송정석	4,500
	홍준식	6,100
1962	Miss Y.J. Kim	6,000
	임의선	6,000
1963	강두희	6,640
	신태선	6,640
1964	서석조	6,700
	Dr. Y.J. Kim	600
1965	조규철	6,800
	우태하	6,800
	Miss K.H. Lee	6,900
	Dr. J.H. Kim	7,100
1966	박수연	4,200
	김일순	7,200
	김병길	7,100
1967	Mr. C.H. Kim	2,900
	최대경	7,100
	Miss K.H. Lee (연장)	4,600
	Miss K.H. Lee (연장)	600
1968	박수연 (연장)	600
	최대경 (연장)	600
	윤덕진	4,150
1969	양용태	6,150
	윤석우	7,350
	임의선	8,150
	민광식	2,500
1970	김원준	8,250
	이근태	9,250
	이유복	4,950
1971	오영근	9,750
1973	박준식	10,000
	박병문	10,000
1974	김남현	3,000
	정석호	3,000

부록 2. CMB가 지원한 연구비 수혜자 명단

연도	수혜자	연구제목	액수(달러)
1962	이보영		35,000
	홍필훈		
	홍사석		
	홍석기		
	김순웅		
	윤덕진		
1964	민광식(외과)	췌액분비 및 수술 후 환자의 수분대사에 관한 연구	2,375
	이상용(내과)	알리지성 질환에 관한 연구	3,200
	이기열(생화학)	한국인 식품의 분석	4,325
	박수연(해부학)	조직화학 연구	2,125
	이우주(약리학)	조직카테콜아민이 동맥경화증 발생에 미치는 영향	4,350
	문태준(신경외과)	한국 동란시 뇌수술 받은 환자에 관한 연구	1,925
	김광희(정형외과)	골이식에 관한 연구	1,700
1965	신태선(해부학)		3,000
	송정석(생화학)		2,000
	홍석기(생리학)		4,100
	홍사석(약리학)		5,100
	최대경(미생물학)		4,500
	소진탁(기생충학)		2,500
	채웅석(내과)		2,500
	이삼열(임상병리)		2,000
	김명호(예방의학)		3,500
	김경수(해부학)	척추신경 연구	1,016
1966	유종섭(약리학)	갑상선 홀몬 기전연구	3,125
	양용해(미생물학)	토끼의 섬유모세포 조직	2,870
	양재모(예방의학)	기초 보건위생 연구	1,700
	최금덕(해부학)	Autoradiography	20,000
1967	유준(미생물학)	매독의 진단	
	이용우(병리학)	실험적 신장염	
	정승화(비뇨기과)	신장의 기능	
	강복순(생리학)	세포막 이동	
	이동우(예방의학)	학생교육실습	
	김윤수(생화학)	간장효소에 대한 알콜영향연구	4,800
1968	김원준(약리학)	췌장효소의 연구	2,500
	윤종식(생리학)	만성종양 연구	5,000
	장학내(미생물학)	막걸리에 대한 연구	1,500
	박병문(정형외과)	연골이식 연구	1,650
	우태하(피부과)	막 이동 연구	2,600
	박창윤(방사선과)		2,000

1969	김경숙(병리학)	간장암 연구	3,000
	소진탁(기생충학)	기생충 연구	2,000
	최대경(미생물학)	면역학 연구	1,500
	이남희, 홍사석(약리학)	췌장 연구	2,000
	권숙표, 윤명조(예방의학)	유화가스의 노출연구	450
	홍순각(안과학)	Heterophoria 연구	3,000
	윤덕진(소아과학)	산소흡입연구	600
1969	안재영(산부인과)	바이러스 연구	1,000
	김영래(피부과)	Rhns 연구	3,000
	김윤수(생화학)	인슐린 연구	4,000
1970	10인		30,000
1971	4인		22,000
1972	우태하 등 8인		40,000
1972	6인		17,000
1973	6인		50,000
1974	8인		50,000
1975	박양생(생리학)		4,926
	홍사석(약리학)		3,610
	최인준(병리학)		6,042
	이규창(신경외과)		6,253
	박인용(이비인후과)		3,427
	김춘규(외과)		4,725
	김순옥(해부학)		3,650
	권숙표(예방의학)		4,984

참고문헌

1. 자료

China Medical Commission of the Rockefeller Foundation, *Medicine in China*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14).

『연세춘추』

2. 연구논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정사』(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98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백년편찬위원회, 『의학백년』(연세대학교출판부, 1986).

J. A. Curran,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nd Medical Center Study of Educational Resources and Program* (1961).

Jean Alonzo Curran, *A Study of Medical Education and Hospital Activities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nd Severance Hospital* (Seoul, Korea Progress Report, March-May, 1963).

Mary Brown Bullock, *An American Transplant: The Rockefeller Foundation and Peking Union Medical Colleg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Mary E. Ferguson, *China Medical Board and Peking Union Medical College* (China Medical Board of New York, Inc., New York).

Abstract

The China Medical Board and the Reconstruction of Korean Medicine after the Korean War: The Case of Yonsei Medical College and Severance Hospital

Yeo In-sok

Dept. of Medical History and Institute for History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fter the Korean War, every effort was made to reconstruct Korean society, which had been totally destroyed during the conflict. Severance Hospital, which was located in front of Seoul Railway Station, suffered almost complete destruction. The U.S. Army, United Board, and other missionary boards and individuals participated in the rebuilding of Severance Hospital. Perhaps the most important supporting group was the China Medical Board (CMB). The CMB was organized in 1914 to help with the modernization of medicine in China. In order to achieve their goal, the CMB had chosen Peking Union Medical College to be its "Johns Hopkins" in China. However, because the Communist Party took over the Chinese mainland, the CMB could not continue their work in China. As a result, other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received the organization's support. In Korea, Severance Hospital and Yonsei Medical College were its main beneficiaries. Thanks to the CMB's generous financial support, the new medical college was built in Sinchon. In addition, the CMB annually provided research funds for about 20 years to the faculties of Yonsei Medical College. The CMB purchased research and educational apparatuses. It also provided invisible support in various ways: Scholarships for students and fellowships for facultie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Further financial support provided consulting for medical education and hospital administration. In summation, the CMB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reconstruction of Korean medicine through its contributions to Severance Hospital and Yonsei Medical College after the Korean War.

Key Words: China Medical Board, Severance Hospital, Yonsei Medical College, Korean War